이 되어버립니다.

한단지보(邯鄲之步)라는 말이 있지요? 옛날 연나라의 '소년이 조나라의 한단이라는 곳에 가서 조나라 걸음걸이를 배우려다, 조나라 걸음걸이를 배우기 전에 자기 나라 걸음걸이까지 잊어버리고, 끝내는 네 발로 기어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는 고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연나라의 소년으로 내몰지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뛰어난 삶을 살았는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이 세계 제일이었어요. 영국이 민주정치의 본산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등 이념적으로 나뉘어 서로 경쟁했어요. 우리는 영국보다 먼저 정당정치를 했던 것이지요.

예의는 상대방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나,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더욱 좋아할까 하고 늘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고서 돈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가난하게 사는 삶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부자는 인색한 것으로 부자가 되는가 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진 것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도리란 무엇인지요?

▲자족(自足)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자주 가지는 않지만, 초상집엘 가보면 우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집 가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도 못했는데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다고 눈물바다예요. 그런데 부잣집에 가서 보면 관(棺)을 저만치 두고 재산 때문에 싸워요. 돌아가신 부모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식이 드물어요. 돈이 많다고 우리가 행복하거나,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1954년 서울 안국동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열린 전국비구승대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맨 앞줄 가운데 검은 안경을 쓴 스님이 만암스님이며, 왼쪽부터 자운, 한사람 건너 청담, 또 한사람 건너 동산, 오른쪽 세번째부터 향곡, 금오, 호봉스님이다. 범행스님도 이 대회에 참석했다. 범행스님은 청정수행 가풍을 일깨웠던 정화운동이 흐려져감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 느껴요"

나누고 베풀면 세상 절로 평화

-일찍이 스님께서는 불교만큼 큰 가르침을 담은 그릇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의 문학 철학 과학 등 학문이 불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요?

▲연기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인 인(因)과 간접적인 원인인 연(緣), 즉 인연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지요.

-스님의 말씀대로 미래, 그러니까 30년 후는 오늘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일텐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또 과거에 지은 악업을 씻고 선업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살 먹은 아이들이 지금처럼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망할 것인지, 흥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아버지 나가신다, 들어오셨다, 인사 여쭈어라, 어른들 앞에서는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말입니다. 서양의 남녀평등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만 강조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였어요. 서양의 여성운동에는 여성을 산업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와서 여성들 보고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들어올 일도 아닙니다. 들어오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혼자 벌어 가족들 부양하기 힘든 시대이니 남자들도 은근히 여자들을 직장으로 보낸다는 얘기도 있는가 봅니다. 잘 한다고 상을 줄 일은 아니지만, 잘못 됐다고 탓할 수도 없습니다.

여성운동을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사회적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쪽으로만 몰고가서는 안됩니다.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그리고 사람다움을 찾는 운동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모성, 여성성, 가정의 회복, 이런 가치들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부드러움, 따뜻함, 온화함, 보살핌, 감싸 안음, 너그러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가운데에 인간의 인간다움과 행복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동양의 정신, 불교의 정신을 내세울 때 이런 것들을 내세워야 합니다.

-참선 수행과 관련해 교리와 인간의 이치를 알아야 참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두는 어떻게 드느냐 하면 일체 경전을 다 본 후에 의심을 내라, 경험에 비추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근기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마땅히 아무 데도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이라는 〈금강경〉 한 구절에 마음자리를 바로 보겠지요. 그런데 중생은 미운 사람 보면 그 놈 때문에 하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것이 끊어져야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습을 끊기 위해 경전도 보고, 세상사의 이치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담=정성운 차장
(swjung@buddhapia.com)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한번 따져봅시다. 먹고 입을 것이 마냥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모두 풍족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인데, 모두 많이 가지려 하면 다툼이 일겠지요. 다퉈서라도 많이 갖겠다면,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남들 먹고 입을 것을 차지하는 것이 됩니다. 나눠야지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나눠서 써야지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탓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더욱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재주도 함께 가졌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욱 흉악하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나누는 데는 쓰지 않고 재물을 지키는 일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행을 낳는 일입니다.

불교에 누진통(漏盡通)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주가 생기고 없어지는 것까지 알 수 있는 능력인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그렇다고 연기법이나 불교를 무슨 신통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한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을 통해 번뇌를 제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밀린다왕문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진실한 것이 있다. 진실을 알고 진실어를 말해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불을 끄게 할 수도 있고, 독을 없애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있다." 밀린다왕의 이 말에 나가세나 비구는 "진실의 힘에 의해 천안(天眼)을 얻게 된다"고 대꾸합니다. 지상 밖의 다른 세계는 육안(肉眼)으로는 볼 수 없고 천안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데, 천안은 진실함으로써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연기법의 이치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로 알면 이로 인해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연기법의 밑바닥에는 삶의 진실, 소박함, 정정당당함, 이런 것들의 가치를 높게 치는 자세가 깔려 있어야 겠지요.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변함없는 영주스님

옛 시에 "동서남북 어느 곳도 머물 곳이 없으니 한평생이 다만 지팡이 하나로세(南北東西無定着/生涯只在一枝笻)"라는 구절이 있다. 운수행각을 하는 선객의 처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시이다. 수십년 선객으로 수행을 해 왔지만 동서사방 어느 곳도 머물 곳이 없는 처지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살림살이가 아닐까.

지난호에 얘기했던 성남 봉국사 객실에 일년에 한 두번씩은 꼭 들르는 스님이 몇 명 있다. 지난번 봉국사에 갔을 때다.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계화에게 영주스님의 안부를 물어보았다. "영주스님, 요즘도 가끔씩 들르나?" "예! 일년에 한 두 번씩은 오셨다 갑니다." "그래, 언젠가 한번 오시면 내가 사는 보광사에도 한번 들르라고 전해라."

옛날 문경 봉암사에 살 때다.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큰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중스님들과 주지스님 사이에 심한 갈등이 일어났다. 누가 신발을 하나 사다 달라고 했는데 주지스님이 그만 도무지 신을 수 없는 싸구려 신발을 사온 것이 발단이 되었다. 점차 갈등이 깊어지더니 급기야 주지스님은 대중들에게 모두 떠나라고 했고, 대중들은 스님에게 주지직을 사퇴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대치하여 긴장감이 감도는 어수선한 가운데 찾아온 스님이 영주스님이었다. 평상한 때 같으면 결제중에 찾아온 스님이니 방부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심한 갈등 중이라 어정쩡하게 큰방에 방부를 들이고 같이 살게 되었다.

비단옷 자가용 멀리하고 운수납자로 사는 수행자

대중들은 영주스님이 주지스님 편이 아닌가 하는 시선으로 보게되고 주지스님은 또 저 사람이 대중들 편은 아닌가 하고 있었다. 그런중에 대중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였다. 한쪽에 앉아있던 영주스님이 아주 큰 목소리로 한마디했다. 손으로 방바닥까지 치며 "내가 알기로 봉암사는 옛 구산선문 가운데 희양산파로 천여년동안 선종가풍을 지켜온 곳입니다. 이러한 선종 제일도량에서 공부하는 대중을 잘 외호해야 할 주지스님 한사람의 잘못으로 선방스님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대중들을 모두 떠나라고요? 결제중에 공부하는 대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법이며 도리입니까?"

실로 추상같은 말이었다. 그의 말은 누가 들어도 반듯하고 논리정연했다. 결국 그 해 여름 주지스님은 사퇴를 했고 우리 대중들도 흩어져 헤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만난 스님이 영주스님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의 아주 용감한 영주스님의 이미지가 아주 또렷하게 기억되고 있다. 그후 우리는 여러곳에서 같이 살았고 이곳 저곳을 다니는 만행도 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곳은 역시 성남 봉국사 객실이었다. 언젠가는 봉국사 객실에서 며칠을 같이 묵은 일도 있었다. 낮에는 경주시내에 나가 박물관 같은 곳에도 가보고, 밤이 되면 다시 봉국사 객실에 돌아오곤 했다.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국수 한그릇을 사서 나눠 먹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허물없이 친해졌다. 순진하기는 그나 나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그는 나보다는 수단이 나았다. 그래서 매번 나는 그의 신세를 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차비가 없을 때 차비를 얻어오는 것은 영주스님이었다. 길을 지나가다가 오디오 가게 앞을 지날때면 흘러나오는 클래식에 귀를 기울여 듣기도 하는 멋을 가진 그런 일면도 있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대단한 각오를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게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도 변하게 되고 하여 처음 먹은 마음이 물먹은 흙덩이처럼 허물어지고 만다. 우선 내 경우만 해도 운수납자로 참선수행을 시작하였을 때는 가까운 도반들과 객실에서 누더기를 꿰매면서 서로 "우리가 도를 깨닫기 전에는 중도에서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했었다. 적어도 당시의 우리는 순수하기를 원했고 또 순수했었다. 우리는 일평생 누더기를 버리지 말자고 했고 외로운 수행자로 살자고 했다. 그런데 너도 변하고 나도 변했다. 옛날 도반을 만나보면 모두들 부티가 난다. 웃은 누더기 대신 때깔

그림 · 문병성

나는 비단이다. 얼굴은 살이 쪄서 개기름이 번들거린다. 고급자가용에 행동거지도 세속적이다. 입을 열고 말을 하면 오로지 종단 정치얘기 뿐이다.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종단정치 속에서 어떻게 줄을 잘 서서 벼슬을 하고 실세(實勢)가 될 것인가 하는 것 뿐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렇게 변질되었다.

이렇게 변하면서 그리워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운수행각을 하던 젊은 시절이고 혼자 쓸쓸히 객실에서 때에 젖은 이불을 덮고 잠이 안 와서 뒤척이던 일이다. 이상하기도 하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애잔한 슬픔이기도 하더니 그런 것도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지금은 그리워진다.

이 차가운 겨울, 영주스님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일붕 서경보스님의 상좌인데 경보스님이 일붕선교종을 만들면서 은사스님도 없고 문중조차 없어진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오직 참다운 운수납자로서 살아갈 뿐이다.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겨울 호

지상강연 / 혜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❺ - 禪강좌
승찬 대사의 신심명(信心銘)

불교계진단 11 / 불교계 생협운동의 현주소

최초완역 /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마지막편(卷下)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의 또 하나의 역작, 『중편조동오위』 번역의 마지막편. 이 책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서여 민영규 선생이 일본 京都대학에서 발굴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귀중한 자료이다.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이창섭 선생이 국내 최초로 번역 소개하는 『중편조동오위』를 통해 일연 스님의 선(禪)사상을 새롭게 조명해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12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우리 절의 건축문화체험 ❹ 송광사, 그 정연한 영역의 미학

특집 / 21세기를 위한 열린교육, 대안학교
총체적 위기 앞에 선 우리 교육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열린교육, 대안학교. 21세기 새로운 교육현실 개선과 열린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현장을 찾아보고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인 불교계의 가능성을 점검해 본다.
- 21세기 대안교육의 물결과 방향
-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불교계의 가능성
- 현장탐방/ 새로운 교육의 현장, 대안학교를 찾아서

우리시대의 匠人 / 기와 장인(製瓦匠) 정문길 씨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불교계 내의 개인 홈페이지 소개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 영/호남 재가불교운동편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획.
근 · 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 온 몸으로 개혁불교를 실현한 현공 윤주일 거사
- 동양의학의 중흥을 꾀한 여동명 거사

브라이언 베리의 동남아불교문화기행 ❷
앙코르 와트와 보로부드르

불교와 풍속 / 불교와 성(性)
기복불교와 성(性)의 사회 풍속사

연재소설 / 『관세음보살본행경』 평역 · 관세음보살 이야기 마지막회.
『산은 산, 물은 물』, 『만행』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소설가 정찬주 선생이 소설적인 구성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불자들의 신행지침서 같은 소설.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1999. 9. - 1999. 12)

불교계 주요일지 - 조계종 사태 일지(1999. 9. - 1999. 12)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E-mail:kbpf@chollian.net

2000학년도 제9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법사(法師)의 정의와 역할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여
정의와 역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하연의 정법을 수순법지하고
섭수정법하는 대승보살로서
여법히 불교의례에 따라
법사법위를 품수받은
불교지도자임을 말합니다.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불교 기본의식 포함)
대법사과정 = 2년 (불교 상용의식 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년 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종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홈페이지 http://pubsa.buddhism.org